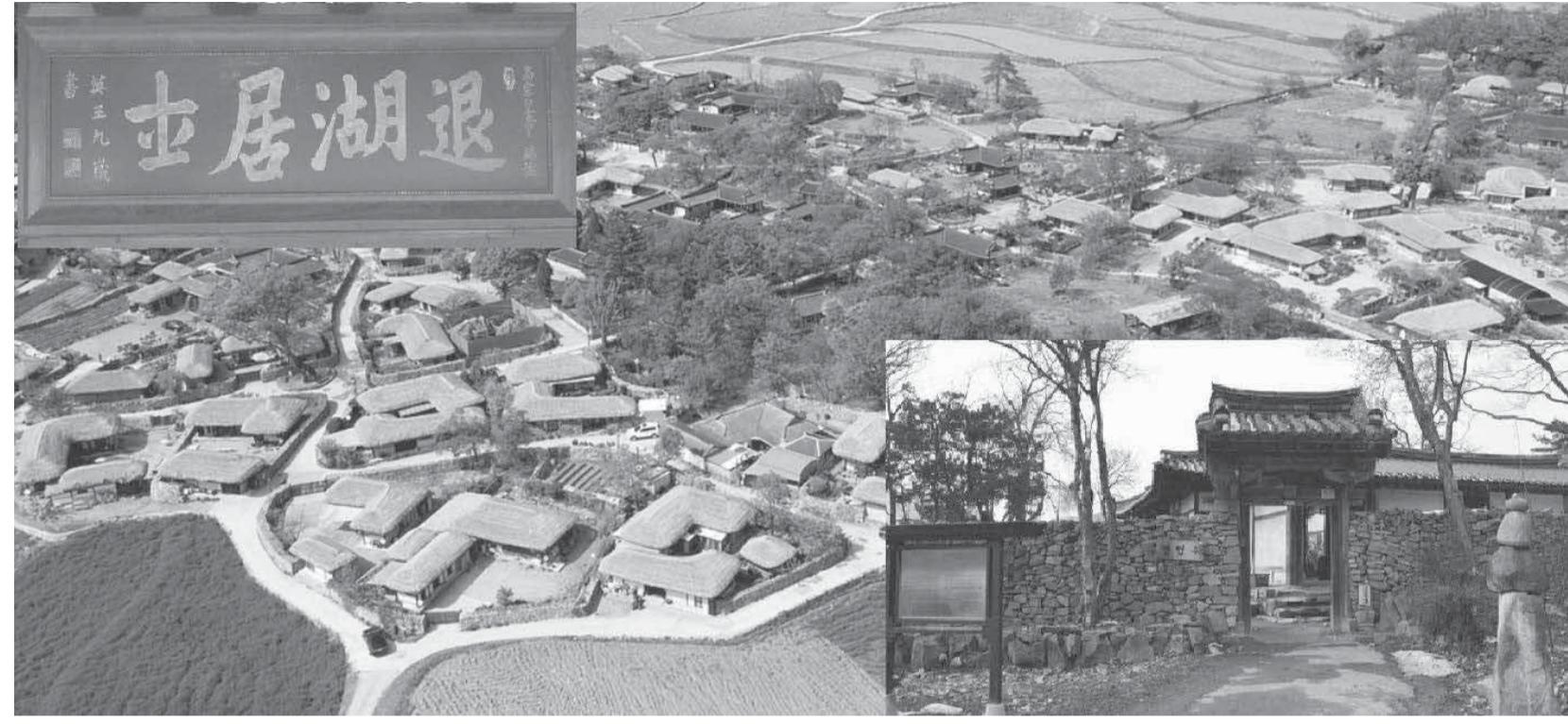


◆며느리 권씨 일전 8-2

열녀 유인(孺人) 권씨(시중공파36世, 권연權淵의 딸)

이용덕(李用德, 예안 이씨)의 처



외암민속촌 전경. 고종황제가 하사한 이정열 참판댁, 영왕 9살 때 쓴 현판

직제학 이정열李貞烈의 며느리

열녀 권씨의 시아버지 이정렬의 이름이 정(貞)과 열(烈)임은 이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다.

이조참판을 지낸 퇴호 이정렬(1865~1950)이 살던 집이라 '참판댁'이라는 택호를 갖게 되었다. 이사종의 11세손인 이정렬은 할머니가 고종비인 명성황후의 이모이기 때문에 명성황후로부터 각별한 은총을 받았다. 참판댁은 이정렬이 고종황제로부터 하사 받아 지은 집이라. 고종황제가 이정렬에게 하사해 '퇴호거사(退湖居士)'라는 사호를 영왕(英王, 순종황제)이 9세 때 쓴 현판이 아직 남아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리 예안 이씨 집성촌의 참판댁은 이정렬이 고종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집이다. 명성황후의 이모가 이정렬의 할머니로, 왕실과 밀접했던 이정렬은 이조참판을 했던 터라 이 집을 참판댁이라 부른다. 큰아들이 거주하는 '큰 참판댁'과 작은 작은 아들이 거주하는 '작은 참판댁'이 낮은 담을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 있다. 큰 참판댁은 동남향, 작은 참판댁은 서남향이다. 두 가옥은 각기 작은 담이 둘러 있고, 사이에 화원이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이룬다. 조선시대 유학 사상이 투영되어 내외담을 두고, 안재와 사랑채를 분리하였다. 타 트인 대청마루 대신 사랑채와 안재 전면에 뒷마루를 두고, 대청전면에는 분합문을 설치하여 햇빛과 찬바람은 막고, 여름철에는 시원함을 누리고자 한 선조의 지혜가 돋보인다.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리 예안 이씨 집성촌의 마을 동쪽에 구현말 규정각 직학사를 지낸 퇴호 이정렬(李貞烈, 1868~1950)이 고종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집이다. 왕실과 밀접했던 이정렬이 과거급제하여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하여 참판댁이라 부른다. 이정렬은 외암 이간의 5대손으로 어려서부터 공부가 출중하였으며, 명성황후의 이모인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 벌써 참판에 이르렀고, 고종황제로부터 퇴호거사(退湖居士)라는 호를 받고 사택도 받았다.

외암마을의 지층에는 돌이 깔려 있어 집터를 단



고, 경작지를 만들 때에 걷어낸 돌로 담을 쌓았다고 한다. 참판댁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은 크고 작은 흙길을 쌓아 만든 돌담이 이어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낸다. 참판댁은 외암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속대문이 우뚝 솟아 위세 있는 기품을 지니고 있다.

열녀 권씨의 가계

권씨의 가계는 조부 권응선이 대한제국의 고급관리이고 대대로 고위층을 이루고 있으나 32세, 33세는 면 친척으로 계보를 이어 간다. 시중공파의 시조묘가 청담동이었으니 그 자산의 가치는 엄청나고 그혜택을 지금도 후손이 받고 있다.

아래 족보에 나온 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양자로 계보를 이어서 그 위의 내용은 고려말부터 하위급에서 상위급으로 상승하지만 초기 직위는 파조부터 해서 불분명한 층면도 있다. 그러나 19세 권극화의 현덕왕후(실제 세자빈)장례, 25세 권성원의 시조묘 보수와 죽보편은 매우 의미 깊은 것이다.

36세 권씨(禮安李用德의 妻, 직제학 李貞烈의 妳부)-35세 권연(權淵, 1872-1949, 전사, 78살)-34세 권응선(權膺善, 1837-1910, 문과, 대사헌, 동지사, 대한제국 특진관, 청와대의 전실장급, 76살)-33세 권용직(權用直, 1806-1868, 금산군수, 추증 이조참판, 63살, 生父 19寸叔 權復仁)-32세 권백인(權擇仁, 1776-1812, 37살, 추증 이조참판, 生父 17寸叔 權中教)-31세 권중진(權中晉, 1776-1996, 20살, 추증 사복시정)-30세 권사옹(權師應, 1744-1787, 44살)-29세 권이성(權彝性, 1728-1805, 永柔군수 현평안도 평원군수, 도녕도정 청와대민정수석급, 生父 17寸叔 權仁幸)-1세 권행(權幸,始祖)

이제 이 '외암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사실상 수도권이라 접근성이 좋다. 따라서 혹 권문의 자손으로 이 마을을 지난다면 꼭 '권씨 할머니'의 며느리로서의 그 숭고한 일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권오철 기자

권채영 작가 “그리움이 사는 세상” 출간



“그곳에 가고 싶다,
그리움이 모여 사는/
흘러간 내 인생이 고스
란히 담긴 나라/ 낯익
은 얼굴들 나와 얼싸안
고 반기기.”

『그리움이 사는 나라』 전문
부산종친회 사무국
장인 권채영 작가는 최근
시조집 「그리움이
사는 세상」을 펴냈다.
이 시조집에는 권 작가

애가 주류이다.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원형질을 이루고, 다정다감으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용은 편향되지 않고 내면에 잠재한 상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든다. 여명에 솟는 햇덩이처럼 하얗게 밤새우며 빛어낸 시인의 고뇌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으로, 혹은 그리움으로 머물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한편, 권채영 작가는 2009년 계간 〈문장21〉로 등단하여 부산문인협회, 오륙도 문인협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동안 기업 브포인『BTP 지역사업 성공스토리』, 수필집『세월 속에 새

긴 쉼표』, 시조집『그리움이 사는 세상』 등 다양한 작품집을 집필하였다.

시인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가슴으로 쓸 때 비로소 그 문자 향이 살아난다. 시조의 맛과 멘은 3장 6구의 틀 속에 있다. 이런 정형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적 완성도를 높여 많은 이의 가슴에 희로애락을 불러일으키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 권채영 사무국장은 경남 합천 태생으로 부산문화과 남강문화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오륙도문학”과 “문장21”의 편집장, 글터상상동인회 회장과 오륙도문화 부회장을 역임했다. 근정훈장을 수여 받은 바 있으며, 2017년 고운문화상과 2020년 오륙도시민대상을 수상했다. 수필집으로 “세월 속에 새긴 쉼표” 등이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정정보도

2021년 12월 1일자 종보 기사 중 잘못 보도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구분	정정 전(~을)	정정 후(~으로)
1면 11월 임원회비 납부 내역 중	권혁운 아이에스 동원(주)	권혁운 아이에스 동서(주)
1면 시조 테사공 혼성금 안내 광고 중	전주 종교 10만원 權秀雄(龍口) 5만원	전주 종교 종교(會長 權彝洙) 10만원 權秀雄(晋州) 5만원
4면 추밀공파 정간공 추종제 봉행 기사 중	“희(緒)는 윗사람을 섬기고 직사(職事)를 받드는데 있어...”	“희(緒)는 윗사람을 섬기고 직사(職事)를 받드는데 있어...”

◆ 수필

홍시에게 말을 걸다

권순자

여름밤에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천둥소리에 놀라 눈을 떠 밖을 내다보면, 번갯불이 번쩍 하는 순간에 나무의 형체가 거대하게 드러나고 시커먼 하늘을 이고 감나무들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곤 했다.



감이 감나무에서 익을 때까지 잘 버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태풍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 따가운 햇볕에 감이 탑스럽게 익어갔다. 날마다 오며가며 감나무, 감들이 건네는 말들을 받아 가슴에 적어 내렸다.

사춘기 때는 감나무들이 특히 가깝게 다가왔다. 나는 감나무와 친구가 되어서 들며 날며 지켜보고 그나무 아래서 놀곤 했다. 긴 여름 땅볕을 종일 받고 서 있는 나무들이 대견하기도 했다. 술한 나뭇잎들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바람에 이파리들이 수천 개의 손부채가 되어 나를 시원하게 해 주었다.

나는 나무와 함께 성장해갔다. 젊은 감과 단홍시, 꽃감을 먹으며 자랐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님을 눈으로 보았다.

부드러운 햇살과, 비바람과 땅볕과 가을의 시원한 바람 속에 익어가고 자라 갔던 것을 보았다.

거기서 산 지십년쯤 지났을 때, 납작감나무는 감이 별로 열리지 않고 쇠잔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태풍에 큰 가지가 부러지고 마침내 어른들이 텁으로 나무동치를 잘랐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아픈 기억이 좀 오래 갔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 감나무가 아직도 서서 나를 지켜보는 거 같다.

나머지 두 그루는 그때도 여전히 틈틈하게 있었다.

내가 도시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친구가 “감을 시장에 가서 사먹는다.”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의아했다.

“감은 따먹는 것인지.”

친구가 큰 소리로 웃었다. “애, 너는 시골에서 감나무를 보고 자라서 그런 거지. 도시 사람은 다 감을 사먹지.”

나도 따라 웃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가을이면 가끔 딸 익은 젊은 감을 한입 먹어본다. 어린 시절의 맑던 느낌을 혼자면서 감이 익을 때까지 견뎌온 시간을 음미해본다. 시장의 과일가게 앞을 지날 때면 단감과 흥시가 진열되어 있으면 나에게 말을 기는 것 같아 언제나 멈춘다. 그리고 흥시 한 소くり 사운다. 따가운 여름을 잘 견뎌온 흥시에게 인사를 한다. 예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구나.

홍시

깜깜해진 허공에 매달려
매서운 바람에 몸 부딪히고
명들도록 흔들렸지만

지탱해주는 가냘픈 가지 불들고
꿈꾸며 견뎌내는 힘으로
어둑한 주변이 무서워도 버티었다

미래에 대한 설렘과 열망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태풍의 소용돌이도 건너

눅진한 햇살을 달게 받으며
젊은 성장
햇살에 익히고 바람에 살피

전신이 말랑해질 때까지
달콤하게 다독이더니

찬바람에 찬하니 속을 다져서
붉은 단풍보다 더 붉어져
가을 하늘 중심에 떴다

-(‘홍시’ 전문, 권순자)

